

투데이 칼럼

당신의 밥상이 위태롭다

우 리나라는 대표적인 곡물수입국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곡물가격이 치솟아 곡물자급률이 2020년 기준 19.3%로 처음으로 20%대 아래로 떨어졌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곡물자급률에서 한국은 19.3%, 중국 91.1%, 미국 120.1%다. 주식인 쌀(92.8%)을 제외하고는 밀(0.5%), 콩(6.6%), 옥수수(0.7%)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나라 주식은 쌀을 제외하고 100% 수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양과 이름조차도 생소한 다양한 과일은 이제 대부분이 수입산이다. TV에 소개되는 다양한 요리조차도 원료는 물론 양념까지도 수입산이 주류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버섯이 한국 사람 입에도 불구하고 요리사 이름도 외국용어를 내고 있다. 요리사란 직업명이 있음에도 왜 '셰프'라고 하는지? 그것도 수입산이라 그런가? 우리나라는 사료의 95%가량을 수입한다. 식량자급률은 40%대를 겨우 유지하는데 곡물자급률이 20%도 안 되는 것은 동물의 사료 때문이다. 육류생산에서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사료비가 재료비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쟁, 가뭄, 경작지 축소, 노동력 감소, 감염성질환, 물류대란 등으로 세계곡물값이 오르면 사료비, 고기값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으로 육류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사료곡물의 수요증대로 세계시장에서 식량을 싸들이 할 날이 머지않았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내에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식육은 본능이라 절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니 육류소비증가는 어쩔 수 없다.

2012년 이후 8년간 육류소비는 32% 증가한 반면 쌀 소비는 17% 감소했다. 연간통계를 보면 2020년에 1인당 육류소비량은 54kg이었고 쌀 소비량은 1인당 58kg으로 조만간 쌀과 육류소비량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넘어섰고, 미국시각에서 본다면 수출2위 국가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소고기 소비량중 국내산과 수입산은 37:63으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 심혈관계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 '육류의 지방'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덩달아 심혈관계 질환 또한 비수하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료에서 심혈관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비수하게 증가하고 있다. 내 돈 내고 사먹은 고기가 내 몸을 망가뜨리고 치료비를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조금 덜 먹기 운동"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과체중, 비만인구가 집 국민의 40%를 넘어가고 있다. 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사회문제로도 직결된 과제다.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먹는 것을 조금만 줄여도 과체중, 비만은 저절로 해결된다. 특히 고기류 덜먹기가 전체 식량이나 곡물공급에 안정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나 어떻게 접근해서 개인의 욕망을 제어할지 선뜻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제는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식량안보의 취약점을 비중 있게 인식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집행, 강력한 뒷받침은 물론이요, 식량생산국과의 장기적인 공급망유지를 위한 외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신정일 전주·완주 인문여행

완주 출신 신정일의 신간 도서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이 출간됐다. 이 책은 전주·완주 인문여행 안내서이다. 전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문화와 풍류가 흐른다. 그 어느 지역보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도시다.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살았고 해서 객사의 이름조차 풍패지관(豊沛之館)이라고 불린 전주다. 전주시를 감싸 안고 있는 완주군은 전주와 한 몸처럼 역사와 자연을 공유하고 이롭나 산과 절이 유독 많다. 전주에 도움을 정한 견훤은 나라 이름을 당당하게 백제의 맥을 잇는다는 뜻으로 '백제'라고 선포했다. 후백제는 후세에 역사가들이 백제와 구분하기 위해 불인 이름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을 대왕이라 칭하면서 정개(正開)라는 연호를 반포했다. 그러나 '전하공물설'과 '대동사상'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허균의 변혁 사상인 호민론으로 이어졌다. 다시 정조 때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탕무혁명론으로 이어졌다. 기축옥사 이후 호남 지역은 서북 지역처럼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으로 분출되었다. 전주는 동학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도시이다. 한옥마을에는 경기전과 김치문화관,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안관분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최명희문화관 등이 있다. 한변당과 전주향교, 오목대, 이목대, 전동성당 등도 전주의 명소들이다. 저자 신정일은 역사와 문화 관련 저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이자 도보여행가다. 옛길인 영남·관동·삼남대로를 도보로 답사했다. 2005년 시작된 우리 땅 걷기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 '선택리지' 시리즈(11권)와 '영릉 가는 길' 등 시리즈(3권) 등 100여 권이 있다.

전주 월남전 참전자회 안보순례

월남전 참전자회 전주시지회 회원 100여 명이 지난 6월 9일 '2022 안보 순례 및 전주 한마당' 행사를 펼쳤다. 이들은 경남 거제시 6.25 포로수용소 기념비 참배와 전시관 관람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을 답사했다. 김계관 지회장은 "오늘 행사가 보존의 달인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전 국민이 단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남전 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안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공법단체다. 2008년 6월 1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로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지 올해 14주년이 되는 해이다. 베트남 전쟁(Vietnam War, 월남전)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6~1954년) 이후 분단되었던 베트남에서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이 전쟁은 분단된 남북 베트남 사이의 내전이며 동사에 냉전시대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한 대리전쟁 양상을 띠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는 미국 등 외국군대가 개입하고 캄보디아·라오스로 점선이 확대되어 국제전으로 치러졌다. 1965년에 미국,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지상군을 파병하였다. 이후 8년간의 전쟁 끝에 1973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 그 해 3월 말까지 미군이 전부 철수하였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으로 북베트남이 무력 통일을 이뤄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앞으로 월남전 참전용사 수장의 미망인 승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참전 영웅들의 처우 개선과 명예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뉴욕 고층 건물과 어우러진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고층 건물 상공에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이 화려하게 터지며 아름다운 이경을 연출하고 있다.

불타는 밭 바라보는 타들어 가는 농심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한 농민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전투로 자신의 밭이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